

“禪과 현대시 접목했어요”



‘속 벽암록’ 마무리한 신동준 교수

누군가를 섬겨왔다
무언가를 섬겨왔다
이제는 내 마음 하나 섬길 때이다
한 발 다가갔다
위 시는 영문학자이며 시인인 신동준교수(한양대)가 최근 완결한 시집 <속(續) 벽암록>의 제 47칙이다. 완결까지 무려 25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걸린 <속 벽암록>은 짙짙한 4행시 1백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 71년 고통과 기쁨, 인간과 자연, 시와 언어 그러한 것들이 물밀듯 범람하여 눈앞이 까맣게 흐려져 적에 ‘불립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러한 것들이 내 의식을 흔들

어 깨웠습니다. 그 무렵 봉은사 역경번역도량 강외에 동참, <벽암록>을 만났습니다.”
송대에 집대성된 <벽암록>은 선의 황금시대인 당대의 전통

(頌古)를 담았고, 그후 임제종(臨濟宗)의 원오극근(圓悟克勤)이 각칙마다 수시(垂示) 지어(著語) 평창(評唱) 등 착안점이라든가 해설을 추가했다. <벽암록>은

막한 시인이 되었다. 마음으로 본 현실의 세계가 치열한 구도 정신에 의해 ‘오늘의 벽암록’으로 태어난 것이다. 한척 한척이 하나의 완전한 시가 되면서 그 자체가 또다른 시의 세계를 열어주는 문(門) 역할도 하고 있다. 신교수는 <속 벽암록> 발간과 더불어 영어 일어 불어 중국

25년 勞作... 4행시 1백칙 완성 영·일·불·중·희랍어로 번역 예정

적 선종을 전수하는 일대 詩篇이다. 설보중현(雪寶重顯 980~1052)이 전등록 1700 공안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00칙을 가려내어 송고

어 희랍어 등으로도 번역시집을 낼 계획이다.

“환경과공동 한계에 이른 현대문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인간의 원형질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교의 선사사입니다. 선과 현대시의 접목- 이것이 내 시의 화두이며 <속 벽암록>은 그 길을 열어주는 또 하나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는 8월 한양대를 정년퇴직하는 신동준교수는 퇴직기념으로 <신동준 전집>을 한양대 출판부에서 낼 예정이다. <속 벽암록>을 비롯 그동안 발표한 시수필 논문 등을 모아 전 5권으로 묶는다. 그런데 왜 <속(續) 벽암록>인가. 둔은스님이 80년대 <신(新) 벽암록>이란 시집을 냈기 때문이다.

이경숙 기자

“불교문화 발전방향 모색”

미술·문학·음악·성보 주제별 세미나
5월 20~23일 조계사 문화교육관

불교미술대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이 논의되며 불교미술의 전승과 발전의 기틀을 모색해 본다.

대 교수) △불교문학의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김재홍 경희대 교수)가 각각 발표된다.

교노래의 가사에 대해(반영규) △불교음악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 △삼양음악에 의한 찬불가의 창작 △국악의 새로운 해석과 불교음악의 재창작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21세기를 앞둔 불교미술의 진흥”을 큰 주제로 20일 열리는 미술발전방안 세미나에서는 △불교미술의 진흥방안(문명대 동국대 교수) △대한민국

22일 개최되는 ‘찬불가 4반세기, 점검과 전망’ 세미나는 문화사회부장님의 ‘불교교과와 신행에 있어서의 찬불가의 역할’ 제하의 기조발표와 △불

국사 해인사 종묘 등 우리 문화유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됨에 따라 성보보존의 효율적 관리와 창조적 계승을 위해 실시되는 23일 성보문화재 세미나는 성보보존관리를 위한 효율적 방안모색이 펼쳐진다.

문화 음악 미술 문화재 등 불교문화의 현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대 토론회가 개최된다. 조계종이 주관하고 불교위원회와 각 문화관련 단체들이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5월 20일 미술 21일 문학 22일 음악 23일 성보문화재를 각각 주제로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일간에 걸쳐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개최된다.

“21세기를 앞둔 불교미술의 진흥”을 큰 주제로 20일 열리는 미술발전방안 세미나에서는 △불교미술의 진흥방안(문명대 동국대 교수) △대한민국



제15회 대한민국사진전 불교소재작품 다수 입상

한국사진작가협회(이사장 이봉하)가 주최한 제15회 대한민국사진전대회에서 불교소재 작품들이 다수 입상했다. 대상을 차지한 컬러작품 ‘무엇을 간구하

시는지요’ (김익중)와 특선으로 뽑힌 ‘만법귀일’ (김기봉), ‘願’ (이경수), ‘여가’ (문공영) 등이 눈길을 끈다. 총 8백48점이 응모해 대상·우수상의 특선작 9점, 입선작 1백27점이 뽑혔다. 입상사진전은 오는 28일~5월8일까지 서울 문예진흥원 미술관에서 개최되며 인천·울산·제주·광주·대전·대구 등 전국에서 순회 전시된다.

◇제15회 대한민국사진전에서 특선을 차지한 김기봉작품 ‘萬法歸一’.

제14회 불교아동문학상 동시작가 김중상씨 수상



한국불교청소년문화진흥회 제14회 한국불교아동문학상 수상자에 동시작가 김중상씨(유석초등학교 교감·사진)가 선정됐다. 수상작품은 동시집 <나무의 손>. 시상식은 오는 6월 22일 오후 3시 삼청동 칠보사에서 갖는다. 김중상씨는 14권의 동시집과 33권의 글짓기 및 독후감, 교육관련 도서를 펴냈으며 그가 쓴 1천권의 동시 가운데 4백여편이 등으로 작곡됐다.

한편 불교청소년문화진흥회는 ‘불교 청소년의 해’를 맞아 오는 27일 중앙승가대 법당에서 불교유치원 포교교과 20권에 대한 출판기념회를 거행한다.

반가사유상 모시기 ‘서원전’ 열린다

5월 8~14일 서울 조형갤러리

서용·서암·월하스님 작품등 전시

본지가 펼치는 대승용 미륵 반가사유상 보급운동이 미술·사회계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초대형 석조미륵반가사유상과 도자 3

천불 반가사유상을 모시기 위한 서원전이 봉축기념으로 오는 5월 8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조형갤러리에서 열린다. 대방사(주지 도안, 경남 사

천시) 주최로 열리는 이 전시회에는 역대 조계종 종정을 지낸 서용스님의 ‘佛’, 서암스님의 ‘無我’, 현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의 ‘世界一花’ 등 큰스님들의 작품과 대방사 주지 도안스님의 서예 60여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대방사에 불인 될 석조미륵반가사유상은 높이 15m, 폭 5m, 무게 2백50톤

의 초대형 불상이며, 미륵전에는 국보 미륵반가상을 본뜬 높이 34m의 도자 부처님 3천불이 봉안된다. 미륵전은 이미 공정이 80% 정도 마쳐진 상태. 도안스님은 “미륵도량불사 후 불교와 제 과학과의 접촉을 모색하며 21세기 정신문화를 이끌어갈 ‘불교사상연구소’ 설립도 계획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는 그 단초가 될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대방사 (053)33-5197

문화소식

한국 현대시 1만여편 CD롬에

보고 들으며 한국의 명시를 감상하는 CD롬 ‘한국의 현대시’가 나온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는 지난 1백년간 발표된 시총 1만8백67편을 엄선해 실고 해석을 단 CD롬 ‘한국의 현대시’를 제작해 지난 12일 연구소에서 시연회를 가졌다. 이 CD롬

에는 시 전문이 수록되고 평론가의 해설, 시인소개, 현대시사연표, 문학용어 설명, 시어풀이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해 놓고 있다. 5월중 발매 예정.

정토합창단 정기연주회

정토사 정토합창단이 창단 4주년을 맞아 오는 25일 오후7시 울산중앙문화예술회관에서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찬불가와 가족이 실내관현악단 협연에 의해 연주되며 울산상고 남성합창단이 찬조출연한다.

5월 19일 제1회 茶詩 백일장

(사)한국차생활문화원(원장 김승희·사진)은 오는 5월19일 오전10시 덕수궁내 궁중 유물전시관에서 제1회 茶詩 백일장을 개최한다. 시·시조 부문. 참가신청은 5월1일부터. (02)732-9027

◇기사원칙 ‘불심사심’ 습니다.

이 시대 포청천 이인제 경기도지사님! 부처님의 가피력이 영원하소서

28년 전에 한푼의 보상금도 없이 경기도가 보상의무자인 하천공사로 전제산인 농토가 하천이 되어 버렸지만 소송은 커녕 차비 한 푼 없는 처지로 지난 28년간 계속하여 내용증명으로 경기도에 정당한 보상을 호소하였으나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토지소유주였던 어머니는 20여년 전부터 정신질환까지 앓다가 제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년에 또다시 보상을 신청했으나, 이 시점까지 보상에 관한 합의는 커녕 단 한번의 성실한 보상협의조차 없었기에 본 토지의 보상이 국가의 채무로는 성립조차 되지 못했음에도, 보상의무자인 경기도는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 국가채무라고 억지 주장하면서 행정 심판 및 소송으로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한 책임을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위법하게 전가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저희 아홉 남매는 너무도 억울하여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고 차레로 분신자살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자살보다는 더 지혜로운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자애로운 영산 대선사의 인도로 이인제 경기도지사님을 뵈었습니다. 고매한 인품과 탁월한 법률지식으로 지사님은 이같은 경우에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시며, 법 규정대로 정당한 보상이 경기도에 의하여 직접 이행될 수 있게 산하 공무원들 독려함으로써 지난 28년간 어머니의 억울함 해소는 물론 저희 아홉 남매의 생명까지도 구해 주셨습니다.

이미 상식화된 법 규정이 아무리 엄중해도 지난 28년 간 전임자들이 한결같이 오로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여러가지 누적된 위법행위로 인한 억울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책임져야 할 자신의 의무라는 결정보다는 위법하지만 단 한마디 스스로도 납득못할 영등한 주장만으로도 가능한 행정심판 및 소송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거의 모든 공직자의 일반적 태도임에도 이인제 경기도지사님의 이같은 정법행 태도는 이 시대 공직자의 사표요, 둘도 없을 지도자만이 지닐 수 있는 고매한 인품과 바른 지도력이기에 앞으로도 영원할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피를 서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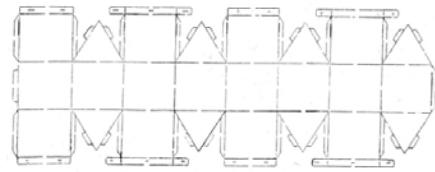
신현주 신현숙 신현자 신현옥 신현순
신현경 신현철 신현애 신현석 **합장**

실용신안 : 제14461호 의장등록 : 제12382호

이제 연등에 변장한 풀칠이 필요 없습니다!!



◎편철상대(골조 및 인체걸지 하지 방식)



◎단 한번의 공정으로 2분내 완성

*전국 불교용품점 및 본사로 문의바랍니다.

훈법등

오직불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작·이·간·편·한·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납장으로 풀칠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맛스러운 등’이 2분내에 완성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만회 고승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불종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수일 전부터 사철의 축제 분위기’에 활용

재·사·용·가·능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며 수 회의 재사용이 가능’토록 고안.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등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철을 위한 경제적 가격’

취급품목

봉축행사용품 일체
홍법광각등, 초벌등, 영가등, 천도광명등, 삼세소멸등, 만불가, 천수다라니뱃, 교패(불지직, 교통안전기원패)



오직 불심으로 보답하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 2동 398-6
훈법기획 TEL : (032) 613-4027, 4028
FAX : (032) 665-0965